

Q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러 우방 벨라루스도 긴박...대통령, 군 수뇌부 긴급회의 소집





1010회 9 12 15 25 34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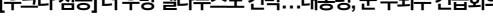












송고시간 | 2022-02-24 16:58



윤종석 기자

┃ "푸틴, 침공 전 루카셴코에 전화해 작전 설명"...러, 벨라루스 쪽에서도 공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자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도 대통령이 군수뇌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AFP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날 군 수뇌부 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



러시아군과의 연합훈련 시찰하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모길료프 로이터/BeITA=연합뉴스) 알렉산드르 루카쏀코(가운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도시 모길료프의 오시포 비치 훈련장을 방문해 자국군과 러시아군의 연합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방인 벨라루스의 여러 훈련장에서 연합의 결의 2022'로 명명된 연합훈련을 오는 20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제3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2.18 leekm@yna.co.kr

벨라루스 대통령 공보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5시) 군과 긴급 회의 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을 설명했다 고 AFP는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5시께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가 있었다"며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과 돈바 스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돈바스, 크림반도 등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침공을 벌이고 있다.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벨라루스는 최근까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다.

합동 훈련은 당초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직전 돈 바스 긴장 상황 등을 이유로 전격 연장됐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루카셴코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인 러시아가 직접적 공격을 받으면 벨라루스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 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아권의 대규모 반정 부 시위를 진압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부쩍 밀착 관계를 형성 했다.

ba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4 16:58 송고

#벨라루스 #러시아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 |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임뉴스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